特輯 大學과 社會奉仕

大學의 開放과 平生教育

白 明 姬
(梨花女大 教育學科)

1. 대학의 갈등

오늘날 한국의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갈등이 있다. 즉 教育의 大衆性의 問題와 秀越性의 문제를 동시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하나의 教育體制 속에서 동시에 만족시키기에는 서로 相衝되는 要素를 각각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大學教育의 大衆化는 이제 大學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대학에 있어서 大衆性과 秀越性의 문제는 兩者選擇의 단계가 아닌 것이다. 두 教育理念을 하나의 大學體制 속에서 어떻게 統合 내지는 接木시킬 것인가를 現實化해야 할 단계에 놓인 것이다. 그것도 매우 시급하게 要請되는 대학의 課題이다.

民主主義를 發展시켜야 할 當爲性을 지닌 社會일수록 이 課題는 절실할 것이고 産業社會의 人材競爭에 도전해 볼 意志가 강한 社會일수록 그러할 것이다.

현대 사회는 배워야 할 많은 必要를 던지고 있다. 能力主義 社會이기 때문에 高學歷을 選好하게 되고 急變하는 社會에서 새로운 知識과 技術을 再教育 받지 않으면 밀려나기 때문에 教育받을 필요가 생긴다. 産業社會가 엮어 내는 病弊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배워야 하고 현대 사회에서 초래되는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배울 필요가 절실해진다.

현대 사회는 平生 배우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고 있고 배움을 통해서만이 인간적 삶의 價値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社會 자체가 學習社會化 되어 가고 있다. 특히 배움이 끝났거나 중단되었던 成人들의 학습 요구는 매우 강렬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성인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에 대학이 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인구가 확대되고 대학의 교육 내용이 성인 학습자의 요구에 의해 다양화되고 대학의 제도가 성인 학습자의 여건에 적절하도록 개선될 필요에 직면하게 된다.

성인 학습자를 캠퍼스에 유입하는 것은 교육기회의 평등화, 교육의 보편성, 고등교육의 양적 발전 등에 크게 공헌하지만 선별적으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대학의 전통적 교육관에서 볼 때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지만 대학에서의 인재 양성은 산업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서 불가결한 일이며 인류 문화의 창조와 국가·사회를 주도할 인물을 키운다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오늘의 대학이 인재 양성을 계획적으로 시도하는 방향으로

만 운영된다면 결과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 받고자 원하는 성인 학습자를 외면하게 된다.

中世大學의 發生 경유를 보면, 배움을 갈망했던 젊은이들이 둘 셋씩 떼를 지어 교사를 찾아 다니다가 우연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그들이 자율적으로 배움의 조직(universitas)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제공되었던 공동 숙소(college)가 현대적 대학의 출발이라고 생각할 때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배움을 갈망하는 成人學習者에게 대학의 문호를 開放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가 된다. 배움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학에서 배울 기회를 가지게 되고 그들이 학습한 결과에 의해서 혹자는 産業社會의 人材가 되고 혹자는 文化創造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에서의 自律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모든 학습자의 자율 선택에 의해서 배움과 전공이 결정되고 그 교육 결과에 따라 사회 기여를 결정하게 된다. 즉 학습자의 동기와 선택이 곧 대학의 풍토가 되고 사회 직업 선택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학의 풍토가 자율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모든 학습자의 자율 의지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모든 학습자가 결정하는 그 학습 자체가 곧 교육의 目的이 되며 아래에서 위로의 上向的인 敎育風土를 조성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해야 할 大學의 모습은 人材養成을 優位에 두는 大學의 體制에 있다. 國家·社會가 必要로 하는 人材를 大學이 選別하고 大學이 그들을 가르치고 졸업 후에 그들이 社會 각 分野에서 役割을 담당하게 된다는 論理는 大學敎育의 手段主義的 風土를 조성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大學의 自律 결정이 優先이기에 앞서 國家·社會의 人材敎育에 기여한다는 敎育方針은 자칫하면 下向的인 官僚制的 敎育 構造를 形成할 名分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大學은 스스로 機能主義 내지는 道具主義에서 고민하게 된다.

大學은 이제 敎育을 갈망하는 모든 靑少年 내지는 成人에게 그들이 必要로 하는 敎育을 提供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大學敎育의 機會를 擴大함으로써 敎育의 平等主義에 기여할 수 있고 個人의 삶을 價値롭게 實現하는 데에 기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많은 學習慾의 자유로운 實現이 國家·社會 發展에 原動力이 되고 文化創造를 主導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 바로 敎育의 大衆性과 秀越性이 接木되고 統合될 수 있다는 論理를 여기에서 찾게 된다.

2. 成人敎育과 大學의 奉仕性

종래의 개념으로 成人敎育은 制度的인 學校敎育이 責任질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成人敎育을 社會敎育(non-formal education)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基礎敎育이 不足한 어른에게 文字를 習得케 한다든가 農業技術이 不足한 靑年에게 營農技術을 가르친다거나 主婦에게 料理法이나 育兒法을 가르치는 등의 敎育은 社會敎育機關인 私設講習所, 政府, 敎會, 民間團體 등이 해야 할 役割로 간주되어 왔었다. 이런 理由에서 大學이 市民的 敎養敎育이나 技術敎育을 부분적으로 담당한다는 것은 大學敎育의 本來的 役割에서 벗어난 敎育이라는 느낌이 든다. 大學이 가지고 있는 시설, 교수 등을 活用하여 地域社會의 敎育的 필요에 부응함으로써 地域民 혹은 地域社會發展에 기여한다는 것은 大學의 奉仕的 役割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즉 制度的 學校敎育機關이 非制度的 敎育, 즉 社會敎育의 機能을 학교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인 셈이다. 社會 자체가 社會敎育을 담당할 人的·物的 與件이 不備하거나 社會敎育의 必要性 그 자체를 사회가 인식하지 못할 때 大學에서 地域發展을 主導하기 위한 社會敎育을 담당해야 할 책임이 떠맡겨진다. 이것이 바로 大學의 奉仕的 機能이며 大學에서 제공하는 성인교육이 된다.

이러한 大學主導의 社會敎育 내지 成人敎育은 正規의 大學敎育과는 本質的으로 다르다. 學點이나 學位取得이 目的이라기보다 成人이 個人的, 職業的으로 필요한 敎育 프로그램에 參與하게 되는 것이다. 大學 자체에서도 이러한 成人敎育 프로그램을 奉仕的 機能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학의 과

정을 뒤늦게나마 이수하고자 하는 성인 학습자들에 대한 교육 기회의 개방은 대학의 봉사적 기능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경제, 종교, 성, 연령, 기타 개인적 조건에 의해서 계속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 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民主的 敎育의 기본 이념이기 때문이다.

직업을 가진 성인이 뒤늦게나마 정규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하고 가족의 생계유지를 책임졌던 청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대학 진학은 가능해야 한다. 모든 個人에게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敎育 構造가 실제적으로 開放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平等主義를 지향하는 大學敎育의 民主化 작업이며 平生敎育을 制度的으로 可能하도록 構造化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成人 혹은 職業人에게 大學의 過程을 계속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大學의 奉仕的 機能으로 해석해야 한다기보다 大學敎育의 機會를 均等하게 保障하려는 敎育改革 내지 敎育運營의 民主化 작업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大學에서 成人이나 職業人에게 高等敎育에 相應하는 敎育機會를 擴大한다는 것은 학교 제도의 기본 方針이며 民主社會의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成人學習者를 위한 實際的인 大學敎育의 開放 내지 擴大는 平生敎育 理念에서 유추될 성질이라기에 앞서 근원적으로 平等主義를 실현하려는 高等敎育 機會의 保障으로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서 成人을 위한 大學敎育의 開放을 두 가지 관점에서 특성지우게 된다. 그 하나는 地域社會의 敎育的 需要에 부응하려는 奉仕的 性格을 띤 敎育運營이며, 다른 하나는 個人的인 與件에 관계 없이 敎育機會를 均等하게 保障하려는 平等主義的인 敎育運營인 것이다. 이 두 측면이 모두 大學의 開放性을 전제하며 大學의 人口를 擴大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배움을 통해서 삶의 質을 높여야 한다는 평생교육 이념의 실현이 된다.

그러나 대학의 개방은 대학 인구의 확대, 특히 성인 학습자의 확대를 동반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우려하는 근거가 된다.

3. 平生敎育의 理念과 大學의 開放

랑그랑(P. Lengrand, 1970)의 표현대로 "…인생의 첫 출발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중단되지 않는 발달 그 자체를 평생교육…"으로 지칭하게 될 때 교육의 '平生性'의 보장은 삶을 영위하는 한 누구에게나 인간으로 살아갈 基本的 權利가 된다. 데이브(R.H. Dave, 1976)는 삶의 質을 높이기 위해서 人格的·社會的·職業的 發達을 성취시키는 形式的·非形式的 學習活動을 총괄해서 평생교육이라고 규명하고 있다. 즉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場(field)을 水平的으로 統合함으로서 家庭敎育의 補完的 機能으로 社會敎育과 學校敎育이 調和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學校敎育의 補充的 役割을 家庭이나 社會에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社會敎育(non-formal education)이 學校敎育(formal education)으로 統合될 수 있어야 하고 學校敎育의 問題가 地域社會의 敎育 프로그램이나 職業中心의 프로그램으로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사회 전체가 敎育을 함께 담당해야 할 學習社會를 指向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은 용어 그 자체가 함축하고 있듯이 生活의 질을 높임으로써 人間的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敎育이며, 모든 개인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장(field)에서 평생 동안 최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은 유아기에서 청년기에 이르기까지의 敎育의 繼續性(continuing education)과 제도적 학교교육과 비제도적 사회교육의 통합을 전제하여 가정, 학교, 사회의 전 교육과정을 평생교육의 틀 속에 융합시키는 敎育의 統合性을 뜻한다.

교육의 平生性을 대학에서 보장하기 위해서 성인의 요구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위를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이 운영의 신축성을 기해야 한다. 한편 교육의 통합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업교육, 교양교육, 서민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의 평생교육은 계속교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확장 프로그램(extension pro-

gra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국에서처럼 연장교육(futher education)이라고 할 수도 있다. 대학이 종래의 젊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성인까지 확대한다고 하여 대학의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의 사회교육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결국 평생교육 이념은 均等한 敎育機會를 보장함으로써 大學의 開放을 필연화한다.

4. 大學開放의 要求와 大學의 變貌

성인 응답자 1,067명 중에서 97%가 배울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대답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 성인들은 29.8%가 대학에서 교육 받기를 원하고 있다(백명희, 1986). 정부, 민간, 대학, 기업 등에서 교육 받고 있는 成人學習者 각 60명씩을 표집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36.2%가 대학에서 교육 받기를 원하고 있다(최운실, 1986).

성인 학습자들은 대학에서 교육 받기를 원하는 이유로서 敎育의 專門性이 유지되고 강사진이 우수하며 대학의 學問的 風土가 좋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대학이 아닌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 학습자들은 사회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연계성이 없었다는 점을 가장 큰 불만이라고 하고 있다(백명희, 1986).

우리 나라의 성인 학습자가 기대하는 교육의 내용으로는 전문, 기술교육(42.0%)이 가장 높고 교양교육(24.3%)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에서 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奉仕的 次元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밝히기는 어렵지만 성인을 위한 특강, 공개 강좌, 동창회 강좌 등이 임의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은 1960년대의 일로 본다. 그 후 1970년 啓明大를 선두로 하여 조직적인 성인교육 제도가 대학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대학들이 성인교육 제도를 수립하고 성인들에게 교육을 개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규의 교육을 받도록 인정해 주는 제도는 아니다. 즉 성인에게 학점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방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인들을 위한 교양교육, 시민교육, 외국어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고 최근에 와서 직업인 전문교육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부언해야 할 것은 일반 대학에서 성인들의 정규교육이 아직도 개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성인들을 위한 정규의 학위과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있다. 放送通信大學과 開放大學이 그 적절한 예가 된다. 이에 비해서 미국의 예를 들어 보면 성인을 위한 특수대학이 아니라 모든 일반 대학에서 성인을 위한 정규과정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젊은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의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학위를 인정하거나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미국 대학의 성인 학생 수는 1970년대에 와서 크게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25~35세의 대학생 수가 1972년의 80만 명에서 1976년에는 15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이 중 50만 명은 full-time의 대학생이다). 한편 35세 이상의 대학인구는 1970~1976년 사이에 50% 증가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1970년대에서 미국 대학의 캠퍼스는 成人學習者로 크게 변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D.S.Queeney, 1984).

대학에 등록한 25세 이상의 成人學習者가 1976년에 270만 명이던 것이 1982년에는 42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고등교육기관의 약 1,250만 명 학생 중 34%가 바로 성인 학생인 셈이다(D.S. Queeney, 1984). 한편 25세 이하의 젊은 학생,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大學에 進學한 학생 수는 점차 상대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즉 1982년의 61%에서 1992년에는 51%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5세 學生이 증가한다는 것은 바로 시간제 학생(part-time student)이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즉 1972년 이후 10년간 시간제 학생 수는 대학 등록자의 35%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시간제 학생이 25세 이하의 젊은 학생에 대치되어 가고 있다(Daniel W. Shannon).

대학에 등록한 성인 학습자의 거의 반 정도는 職業課程에 등록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敎養科目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져 가고 있다(D.S. Queeney, 1984). 대개 職業課程 이외에 敎養敎育課程, 社會奉仕的 課程 등을 두고 있으며, 이들

課程은 學位課程과 非學位課程으로 구분된다.

成人을 위한 敎育運營은 매우 신축성이 있으며 成人들이 어떠한 여건에서도 敎育을 받을 수 있게 大學 자체가 변용되고 있다. 특징적인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백명희, 1986).

· 입학 자격 : 학위취득 과정이나 직업전문화 과정에서는 일정한 학력이나 자격 요건(현직 경험, 현재의 직업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령, 성별, 종교, 학력, 국적 그 밖의 경제·사회적 조건으로 제한받지 않는다.

· 학생 동태 : 연령은 30~40 대에 걸쳐 있으나 차츰 연소화하는 경향을 띤다. 점차 學位課程 혹은 職業課程을 선호하고 있으며 成人學習者의 學習動機가 전통적 학생(젊은 층)에 비하여 매우 뚜렷하다.

· 학생 후생, 복지, 기타 : 성인 학습자를 위한 휴게실, 식당, 간이 도서관, 소규모 세미나실, 탁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성인의 등록 절차를 조언하기 위해 전문 相談員들을 채용하고 있다.

· 교수진 : 學點 내지 學位課程은 전통적 학생과 함께 수강하지만 職業課程, 特別課程, 기타 地域社會奉仕的 課程은 해당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있다.

· 강의 시간 및 기간 : 새벽, 저녁, 주말, 방학 등 다양한 시간을 활용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 집중 강좌 등을 개설하는 등 직업 성인 학습자들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특히 성인 학습자가 거주하는 지역 혹은 성인 학습자가 근무하는 지역에 캠퍼스가 이동하는 off-campus 제를 채택하고 있다.

· 협동적 프로그램 : 성인교육은 연구소, 정부, 기업체, 타대학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기업체나 정부에 의해서 위탁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 교육 결과에 대한 평가 : 학위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정규 학생과 동일하다. 그러나 수료증, 자격증을 취득코자 할 경우에는 실습, 실험, 실기, 보고서, 출·결석 등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非學位課程, 非職業課程의 경우에는 대개 평가가 따르지 않는다.

· 예산은 성인교육 담당 기관(College, School, Division, Center 등으로 부른다)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대학 본부 예산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성인교육이 잘 운영되는 학교는 대개 독립예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 성인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성인교육의 요구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회사, 기업체, 공장, 병원, 세무서, 정부 행정기관, 각 사회 단체 등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 특히 교수, 학생, 등창들의 긍정적 태도를 유도해야 하며 총(학)장의 적극적 지원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학들은 이미 캠퍼스에 成人學習者가 젊은 학습자만큼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인 혹은 시민들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교육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수용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대학에서 만들어 놓은 制度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습자의 여건에 맞도록 학교 제도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미국 대학은 인구 통계학상 학생 집단의 나이가 더 많아지고 여자 수가 늘어나며, 시간제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바로 高等敎育의 平等化 내지 普遍性에 기여하게 되며 고등교육의 제도상의 변모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5. 韓國 大學의 開放

한국의 대학들이 成人敎育을 실시한 것은 분명한 근원을 밝힐 수 없으나 特講, 同窓講座, 세미나, 公開講座 등이 그 시초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바 있는 放送通信大學이나 開放大學은 成人 내지 職業人을 위한 高等敎育의 課程으로서 독립적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그 밖에 夜間制, 季節制 수업 등도 成人을 위한 制度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一般 大學에서 成人에게 敎育의 기회를 주도록 대학 경영이 변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1970 년대 이후 한국의 대학에서 平生敎育의 理念 普及에 따라 成人敎育이 활발히 展開되고 있다. 그러나 非

學點, 非學位課程이며 또한 大學이 어떠한 자격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현실 사회에의 공신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의 일반 대학이 시도하고 있는 敎育 프로그램은 자연히 學位課程도 아니고 職業專門化課程도 아닌 시민교양교육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大學에서 成人을 위해 開放하고 있는 平生敎育 차원의 敎育 상황을 몇 대학을 중심으로 개괄해 본다.

한국 대학의 평생교육은 주로 성인, 특히 여성이 주요 대상이었고, 교양교육을 위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 초기 평생교육의 특성은 敎養 내지 市民敎育을 위해 지방 자치 단체와 대학간에 공동 노력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대학의 단독 노력에 의해 성인교육이 개방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의 프로그램이 점차 다양해 지면서 교육의 연계성이 높아가고 있다.

敎育의 목표별로 크게 구분하여 ① 대학 주도형, ② 대학-지방 자치 단체 공동형, ③ 정부교육의 위탁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84년에 설립된 梨花女大 평생교육원은 대학 주도형에 속하며, 啓明大 사회교육연구소와 仁荷大 시민대학의 경우는 지방 자치 단체와의 공동 노력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대학 주도적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고 韓國外國語大 외국어연수원은 총무처, 한국무역협회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①교양과정, ② 직업인 재교육(전문교육), ③ 준 정규 대학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啓明大 주부 대학 강좌, 신부 대학 강좌, 시민 교양 강좌 등이 교양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仁荷大의 시민대학은 주로 교양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梨花女大의 교양교육 프로그램 Ⅰ, Ⅱ 역시 이에 속한다.

직업인 재교육(전문교육)과정은 韓國外國語大의 외국어 연수 과정이 이에 해당하며 梨花女大의 유아교육 행정직 전문교육 프로그램, 아동음악교육자 전문교육 프로그램, 간호교육자 연수 프로그램, 카톨릭 교육기관 행정직 연수 강좌 등도 이에 속한다.

준 정규 대학 과정으로서는 梨花女大의 근로여성 교양교육 프로그램(초급 과정, 중급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은 고등학교 출신 근로 여성에게 대학의 교양과정을 초급·중급 각각 1년간 이수토록 하고 있다.

韓國外國語大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 건물이 없으며 성인교육기관의 전임 교수 역시 없다. 대개의 경우 해당 대학 교수들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고 보직으로 성인교육 기관장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 이수 이후에는 대개 수료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비교적 단기간의 교육 이수에 대해서도 수료증을 주고 있는가 하면, 梨花女大의 경우처럼 24학점을 이수해야 수료증을 주는 경우도 있다.

대개 입학(수강)의 자격에는 교양과정의 경우 연령, 학력, 그 밖의 개인적 배경에 제한 없이 선착순에 의해 등록이 된다. 그러나 직업 재교육(전문교육)과정에는 직업, 직위 등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한국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으로서의 성인교육의 모습을 대략 살펴 보았거니와 우선 敎養·市民的 차원의 社會敎育 특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태여 대학에서 해야 할 중대한 근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게 된다. 즉 전문교육 과정 내지 전문 직업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교양과정의 경우 단기간적인 경우보다 장기간에 걸쳐 교육이 심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어야 대학에서 실시할 명분을 가지게 된다.

특히 한국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는 성인에게 정규 과정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학위과정은 시간제 학생 자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발전될 때 평생교육의 교육 기회 균등성의 보장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6. 맺는 말

평생교육의 이념에서 대학은 이제 전통적인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되고 있다. 이미 成人學習者들이 대학에서 교육받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대학에서 봉사적 기능으로서 지역 주민의 교양교육을 담당해 왔던 시기와는 다르게 오늘의 성인 학습자들은 그들의 職業 생활과 人間的인 삶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거나 학위과정을 이수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職業的인 專門敎育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인의 학습 요구는 종래에 생각해 오던 대학의 봉사적 기능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다.

산업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엘리뜨 중심의 전통적 대학관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敎育의 平等主義의 실현을 전제로 하는 평생교육 이념의 구현인 것이다.

이미 선진국의 대학 사회는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있다. 즉 성인 학습자들이 날로 급증하고 있고 대학에 되돌아 와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고 있다. 대학은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을 일반 성인에게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교양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이 성인 학습자에 대해 교양교육뿐만 아니라 직업 전문 과정과 학위 취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엘리뜨 중심적인 傳統的 大學觀을 기초로 하여 고등교육의 平等化를 지향하는 開放的인 대학 이념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곧 대학이 수월성과 평등성 내지 대중성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대학 기능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백명희, "대학의 연장교육에 관한 연구—모형 설정과 그 적용을 위한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50집, 1986.

최운실, "성인교육 유형에 따른 교육 참여 특성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미간행), 1985.

D.S. Queeney, "Adult Learners: A Focus on who They Are, what They Need, and the Problems They Face", *Continuing Higher Education*, 1984, Vol.32, No.2, Spring.

D.W. Shannon, "Traditional Students And Adults: Are They Fundamently Alike in All Unimportant Particulars", *Continuing Higher Education*, 1986, Vol.34, No.2, Spring.

R.H. Dave, *Foundations of Lifelong Education*, 1976, UNESCO Institute of Education.

P. Lengrand, *An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1970, Paris: UNESCO.